

폐사지 '돌부처' 도굴꾼 표적

문화재 도굴꾼들이 이제 폐사지나 마을 어귀의 '돌 부처님'에게까지 손길을 뻗쳐 비지정 성보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사찰의 불상과 탱화를 훔쳐오던 문화재 도굴꾼들이 사찰과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관리자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석불을 훔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1월27일 오후 10시 30분경 충남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에 있는 돌부처 1구가 크레인 등을 동원한 절도범들에 의해 도둑 맞았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경부터 크레인을 실은 트럭 등 차량 2대와 3~4명의 남자가 돌부처를 캐서 트럭에 싣고 달아났다.

주민 조 모(59)씨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 돌부처를 낚신 사람들이 크레인으로 캐내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차에 싣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 돌부처는 높이 80cm, 넓이 50cm에 무게 1t 가량으로 비지정문화재이나 30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목감문소 등을 설치했으나 옹의 차량을 발견치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서산 지역 지리를 잘 아는 문화재 전문 절도단

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용운사지터에서도 석조불상 2점이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원주경찰서는 11월24일 김모(26·원주시 단계동)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홍 모(28)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13일 새벽 2시에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용운사지터에서 미리 준비해 간 밧줄등을 이용해 석조불상 2점을 훔친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8월경 원주시 부론면 법천2리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서건물지내에서 강원도지방기념물 제48호인 석조불상 1점을 비롯 유동상 2점을 도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지난 8월 법천사지 석물이 도난 당했는데도 이를(지정문화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다가 법천사지를 찾은 주민이 석물 몇 점이 사라진 것 같다고 제기하자 뒤늦게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미륵사지 인근에 위치한 120cm 높이의 석조 불두(佛頭) 역시 지난 9월14일경 흔적도 없이 사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불두는 인근에 위치한 석불들이 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 이전의 석불로 추정된다.

충주시 문화공보실 관계자는 "불상 도난후 2주일뒤인 9월28일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문화재청에 보고했다"고 밝히,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산속 깊숙이 위치한 수많은 비지정 석불을 사찰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



◇지난 9월 도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미륵대원사 인근의 불두. 비지정 성보 문화재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가능한 실정"이라면서, "그러나 지자체나 문화재관리청, 관할경찰서에 보다 성의있는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서산·원주등 한달새 4구 사라져

비지정 성보문화재 보호대책 시급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13일 새벽 2시에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용운사지터에서 미리 준비해 간 밧줄등을 이용해 석조불상 2점을 훔친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8월경 원주시 부론면 법천2리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서건물지내에서 강원도지방기념물 제48호인 석조불상 1점을 비롯 유동상 2점을 도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주시 문화공보실 관계자는 "불상 도난후 2주일뒤인 9월28일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문화재청에 보고했다"고 밝히,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산속 깊숙이 위치한 수많은 비지정 석불을 사찰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

"팔만대장경 남해서 제작"

정상운씨 주장 "판각·운송등 연관지명 많아"

경남 남해 일원의 지명을 통해 남해가 팔만대장경 판각지(본사도감)임을 주장하는 이석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2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해본사도감, 그 흔적을 찾아서'라는 세미나에서 남해 향토사학자인 정상운(41)씨는 '남해본사도감의 고려대장경 판각 장소'라는 논문을 통해 남해의 지명을 살펴본 결과, 경관에 사용된 목재의 운송과정, 경관 목재의 종착지, 경관목의 가공, 대장경판 작업시 사용한 경관과 불경지를 생산한 곳, 대장경판 보관장소 등과 있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명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대야마을에는 지사골, 지소골, 지쇠골 등 종이 제조와 관련된 지명이 많으며 이곳에 종이와 원료가 되는 양질의 다펀나무가 자생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그것을 입증해 준다고 밝혔다. 또한 경관에 사

용할 목재의 운송과정에서 유래했다고 추정되는 달실, 소금등, 예서리 등과 대장경판에 사용된 목재의 최종목적지이며 가공과 건조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탐방내, 터물내, 터머리, 가매소, 가마소 등을 들고 있다.

즉 목재 운송 과정에서 밀물, 썰물의 때를 맞추기 위해 사용되었던 신호체계에 소금(小亭·피리) 소금(小亭·풍파리) 소금(素琴·거문고) 등의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소금이 유래했으며 터물내, 터머리, 단범내 등이 '어린 일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팔만대장경 제작의 장소였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공중체를 생각하는 남해 사람들의 모임'(대표 호천스님)은 남해본사도감에 대한 주장들을 조만간 책으로 엮어내고 학계와 경성난도에 발표작업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남해=천미희 기자

한라산 케이블카 반대

관음사등 18개단체 공청회·서명운동

제주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에 나섰다.

관음사와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법도민회'를 비롯 제주환경운동연합, 경실련등 18개단체는 11월27일 '케이블카설치반대 범도민대책기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원로산악인 안홍찬씨를 선임했다.

준비위는 12월 1일 한라산국립공원의 올바른 보호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대토론회에 이어, 4일 더

웨이 출발식을 가진 뒤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각계 1000인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준비위는 특히 제주도가 경제성과 한라산보호를 명분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려는 의도에 맞서 실질적인 대안을 발굴하는데도 주력키로 했다.

관음사 주지 중원스님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라산 개발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종교·환경단체와 연대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동명불원 신도회 주축

'대불 장학회' 설립



사찰 신도회가 주축이 된 장학회가 설립됐다.

11월2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명불원(주지 장산) 대불장학회 설립기념법회(사진)에는 조계종

교육위원장 일면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부산불교신도회 강선태 회장을 비롯 1천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대불장학회는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불교정규대학이나 불교관계 대학원 또는 유학승에게 장학금을 지급, 불교 인재양성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대불장학회 산하에 장산장학회를 설립, 불자들의 자녀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명불원 주지 장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불장학회가 장학불사는 새로운 불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씨앗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수덕사의 여승' 노래비

수덕사 입구에 세웠다

불자가수 송춘희씨가 불러 크게 유행했던 '수덕사의 여승' 노래비가 수덕사 입구 주차장에 세워졌다.

수덕사와 불자가수회 등으로 구성된 노래비건립위원회(위원장 법장 수덕사 주지)는 11월 26일 노래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노래비에는 전면이 '수덕사의 여승' 가사 1, 2절, 뒷면에 영어와 일본어로 가사를 새겨넣었다.

행사에 참석했던 백승진 법사에 따르면, '수덕사의 여승'이 요즘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 노래를 상품으로 관광단을 모집하는 여행사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정성운 기자

시인 정지용 천도문화제

'항수'의 시인 정지용을 기리는 '천도문화제'가 11월30일 충북 진천 보람사에서 열렸다.

삼선포교원 지광 스님의 천도재 집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시인의 시와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항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최근의 가슴아픈 소식을 듣고 시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되어 월북문인으로 치루됐던 시인을 복족의 아들인 구인 씨가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일원으로 아버지와 형님을 찾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청동대불 개금불사 법회

제5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지명)는 11월28일 용화보전앞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개금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방생된 꽃사슴은 경기도 이천 호생원 대표 백인범씨가 기증한 5년생 어미 한쌍과 생후 5개월된 새끼 5마리 등이다. 이날 지명스님은 법문을 통해 "미륵부처 개금불사의 진정한 의미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 국난을 극복하고 희망에 찬 대서원의 가시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청동미륵대불 개금불사는 12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11월7일에 착공, 오는 2001년 12월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아산지역 불자 대법회

제6 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진희)와 아산시시암협의회(회장 현문)는 12월5일 오후2시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포교원장 정현스님 초청 '아산지역 불자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는 동경분야 12명, 찬불가분야 6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종정상에 김용, 총무원장상에 조광종, 포교원장상에 이동렬, 사회복지원장상에 강경은의 3명, 인기상에 김창래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종정 정영스님은 법어를 통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 도가 있는 곳이다. 마음 잘 다스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진각종

서울교구 승년음악회

총공강회 서울교구는 1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관에서 승년음악회를 개최한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서원의 지리가 될 이날 음악회는 "즐거움 합창, 하나되는 신교도"라는 주제로 서울교구 신교도간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선각종

광주교도소 독경 대회

11월19일 광주교도소에서 불자 재소자들을 위한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종정 정영(사진), 총무원장 정암, 포교원장 박해, 사회복지원장 지훈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동경분야 12명, 찬불가분야 6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종정상에 김용, 총무원장상에 조광종, 포교원장상에 이동렬, 사회복지원장상에 강경은의 3명, 인기상에 김창래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종정 정영스님은 법어를 통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 도가 있는 곳이다. 마음 잘 다스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태고종

도선국사 진영 봉안 법회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는 6일 오전 11시 11분 개산 1111주년 불축 및 개산조 도선국사 진영 봉안법회와 다례식을 갖는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 찬불가, 연력 및 행장소개, 진영이문 및 봉안, 축사, 권공, 다례, 법어, 발원문, 사찰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02)392-3007

무량본종

제1회 법계고시

고시위원회(위원장 고담)는 4일 총무원인 서울 무량정사에서 종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1회 법계고시를 실시했다. 이날 법계고시에는 30명의 스님들이 응시했다. 또한 이날 무량본종은 제3차 정기중앙총회를 개최, 새 해 예산 1억3천만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를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이반타 코스는 7-9월이 걸리며, 전환주는 본가는 인내 지력을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김흥국장학재단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호랑나비 김흥국입니다.

세 천년과 함께 저 개인적 화두였던 인간방생과 평생 숙원사업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깨끗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사업과 축구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 2월 26일 김흥국장학재단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와 뜻을 함께 해 주신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모여져 지난 11월 25일 '2000년도 제1회 김흥국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시·군·구청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을 추천 받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저희 김흥국장학재단으로 심심일만으로 도움을 주신 후원회원님들에게 일일이 찾아 뵈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지만 지면을 대신해 인사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학재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제1회 장학금전달식 장면



장학금 수여자들과 임원진 일동

김흥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일

- ①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청소년장학금 지급
- ② 어린이 꿈나무축구교실 지원
- ③ 해병대 전우회 자녀 돌기

후원계좌 안내

농 협: 094-12-080613(김흥국장학재단)
국민은행: 803-21-0319328(김흥국장학재단)
우 체 국: 012-211-0062595(김흥국장학재단)

장학재단 사무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동성빌딩 2층)
전화: (02)786-4011 팩스: (02)786-4877, (02)3775-1119
(02)761-2002(papilio) www.2002asia.co.kr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김 흥 국 장 학 재 단 이사장 김 흥 국 후원: (주)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